

팩트맨팀, 로니상 수상

허위조작정보로부터 지구를 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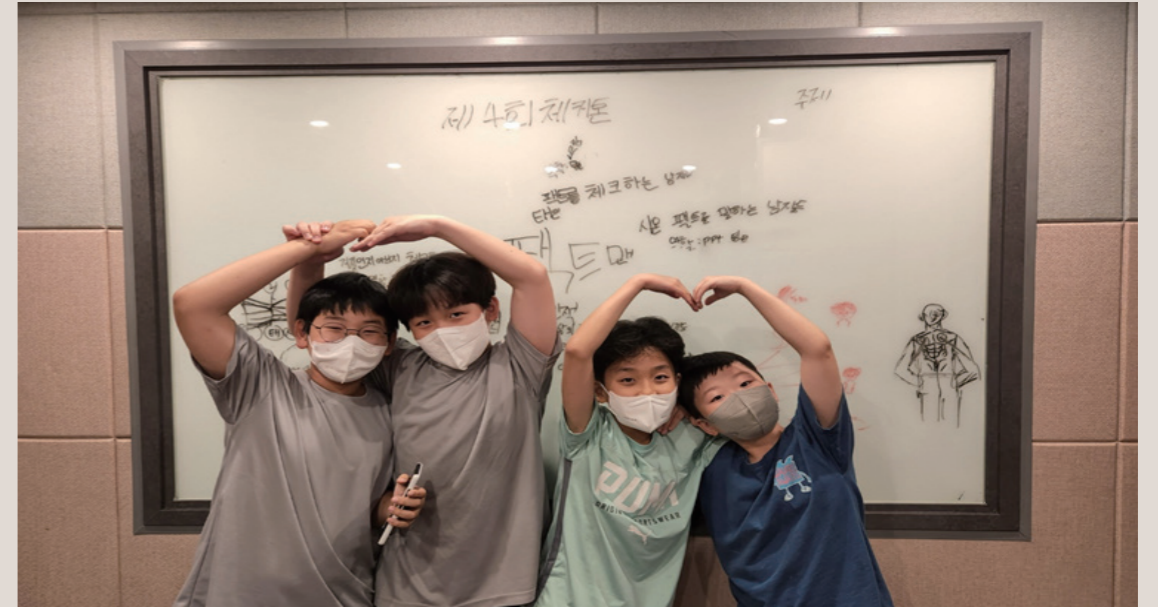


[리포트]

모두가 사용하면 좋다고 하는 텀블러!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는걸까?

[웹 툰]

“텀블러가 환경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팩트맨

김승윤, 박시온, 오민재, 한태인
(서울연희초등학교 5학년)

각오 한마디!

안녕하세요? 저희는 ‘팩트를 체크하는 남자들! 팩트맨’ 입니다. 이번 팩트체크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정보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우리 팀 대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있었고 그게 그냥 진짜인 줄 알고 친구들에게 신기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말 그런가?’하는 궁금증을 먼저 가지고 생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생활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의심해보기

둘째, 다른 미디어에서 같은 제목의 기사를 찾아보기

셋째, 백과사전이나 도서관에서 비슷한 제목의 책 찾아보기

넷째, 확인 후 친구들에게 이야기 해주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팩트를 체크할 ‘팩! 트! 맨!’ 입니다.

팩트체크 리포트

모두가 사용하면 좋다고 하는 텀블러!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되는걸까?



최우리 기자

텀블러를 쓰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텀블러를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텀블러를 사는 것은 또다른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접근한 것이라면 좋은 주제로 보입니다.

정재철 기자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서 팩트체크할 대상을 찾아보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환경 자료를 찾아보다가 텀블러에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텀블러는 무조건 다 좋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텀블러가 탄소발자국을 더 남긴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똑바로 알고 텀블러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종이컵과 텀블러 중에 무엇이 효과적인지? 둘째, 텀블러가 환경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셋째, 굵즈 텀블러를 모으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집에도 그런 텀블러가 5개는 있는 거 같은데 그런 텀블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져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최우리 기자

의심을 주제문으로 정리해서 이를 해결하는 노력은 좋은 시도입니다.

정재철 기자

처치 곤란한 텀블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단순한 팩트체크를 뛰어넘는 좋은 문제의식인 듯 합니다.



Q 어떻게 팩트체크를 하려고 하나요?

1. 검색할 자료

신문기사, TV 뉴스, TV 전문 프로그램, 환경 관련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전문채널,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서 만든 자료들



최우리 기자

어떤 유튜브채널인지가 중요합니다. 정부기관이나 언론사 등의 공신력이 보장된 곳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검색할 내용

- (1) 텀블러 사용이 환경보호에 영향을 미친다.
- (2) 텀블러 사용은 환경과 영향이 없다.
- (3) 사람들의 텀블러 사용 습관
- (4) 텀블러 vs 종이컵 누가 더 친환경적일까?

3. 팩트체크 방법

- (1) 텀블러 사용과 환경보호와 관련해 찬성/반대의 내용이 담긴 기사를 찾는다.
- (2) 이 기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팩트들을 본문에서 찾는다.

- (3) 팩트들이 사실인지 체크하기 위해, 자료들을 검색하여 확인한다.
- (4) 각 팩트들과 검색한 내용들을 정리한다.
- (5) 기사가 주장하는 팩트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체크한다.
- (6) 기사가 정확한 팩트를 사용하여 작성되었는지, 신뢰할 만한지 결론을 작성한다.

Q 팩트체크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료 또는 사람은?

- 신문 기사
- 인터넷 뉴스기사
- 유튜브 환경 전문 채널
-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 관련 책
- 커피 전문점 직원
- 반 친구들
- 담임 선생님

체크해보기



Q 누구에게 물어보았나요?

- 담임 선생님, 과학 선생님
- 반 친구들에게 집에 있는 텀블러 개수 조사해서 알아 오도록 함.
- 텀블러처럼 오래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우리 학용품은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기

Q 무엇을 알 수 있었나요?

- 텀블러를 평균 5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예쁜 텀블러는 굿즈로 구입하기도 한다고 이야기 함.
- 새로운 디자인의 필통, 샤프가 나오면 새로 사게 되고 전에 사용했던 건 안 써서 그렇게 안 쓰게 된 학용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최우리 기자

이를 통해 여러 개의 텀블러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직접 실험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매일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불편 사항 찾아보기
- 종이컵을 하루 종일 사용하면서 몇 번 사용했을 때 쓸 수 없어지는지 알아보기
- 플라스틱 컵도 하루 종일 사용하면서 몇 번 사용했을 때 쓸 수 없어지는지 알아보기

Q 무엇을 알 수 있었나요? 실험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플라스틱은 많이 쓰면 사이 사이에 세균이 들어갈 수 있다던데 그런 것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최우리 기자

플라스틱에 남은 세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를 검증하는 논문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는 텀블러를 130번 이상 써야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130번을 사용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르기도 했고, 중간에 잃어버리기도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최우리 기자

플라스틱을 한번 구입했을 경우 이를 여러 번 오래 써야지만 일회용품을 대체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찾아봤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재철 기자

플라스틱컵, 그리고 텀블러까지 팀원들이 직접 사용해 보면서 그 경험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은 좋은 접근방법입니다.^^ 그런데 실험을 위해 사용한 플라스틱컵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궁금하네요~~



Q 인터넷에 관련된 뉴스가 있었나요?

[환경소비] 텀블러는 ‘환경템’이 아니다! 이소라 기자, 2020. 11. 12. 소비라이프
www.sobi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80

시민 10명 중 8명 “텀블러 있지만” 3명만 “항상 휴대” 2015-11-16 16:52 전민정 기자
www.etoday.co.kr/news/view/992063

재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컵? 친환경이 아니라 굿즈가 돼 버렸다 2022.02.09. 04:30
온실가스가 왜 친환경 텀블러에서 나와? 이유민 기자
m8.hankookilbo.com/News/Read/A202201211651000577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33855>

Q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나 논문 자료가 있었나요?

환경부 발행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Q 참고할만한 다른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책 :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홍수열).

결론 작성하기

1. 텀블러를 잘 사용하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

텀블러를 만드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보다 몇 배나 높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텀블러를 오랫동안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텀블러를 오래 사용하면 환경보호에도 영향을 미치고, 텀블러로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음료수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우리가 종이컵에 따라 먹지 않을 수 있게 종이컵 사용하는 것을 텀블러 사용이 제재한다. 그리고, 삶의 효율성을 더 높인다.



최우리 기자

이를 연구한 근거자료, 출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재철 기자

텀블러를 오랫동안 여러 번 사용하려면 위생적인 관리도 필요할텐데 그 경우 세척을 위해 사용하는 세제의 문제 등도 한 번쯤 고민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2. 그러나 하나의 텀블러를 오래, 여러 번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

텀블러를 만들 때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고, 환경이 보호되려면 한 텀블러를 130번 이상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기 어렵다.



최우리 기자

출처 표기가 필요합니다.

3. 사람들의 텀블러 사용 습관이 환경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몇몇 사람들은 텀블러를 오래 사용하지 않고 모으면서 한 개의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아서 환경보호에 역효과를 낸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한 텀블러를 오래 사용하기도 하고, 나눠쓰기를 해서 환경보호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최우리 기자

이러한 현실 때문에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좋다면 텀블러를 몇 번이나 사용해야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보다 환경에 좋은지를 검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하나의 텀블러를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종이컵보다 친환경적이지 않다.

텀블러가 종이컵보다 더 친환경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텀블러를 만들 때 종이컵을 만들 때보다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의 텀블러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



최우리 기자

좋은 지적입니다. 출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미디어 콘텐츠

“텀블러가 환경에 도움이 안 된다고?”

● 콘텐츠 소개

기획의도

태인 : 글로 표현하기 보다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편하고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웹툰을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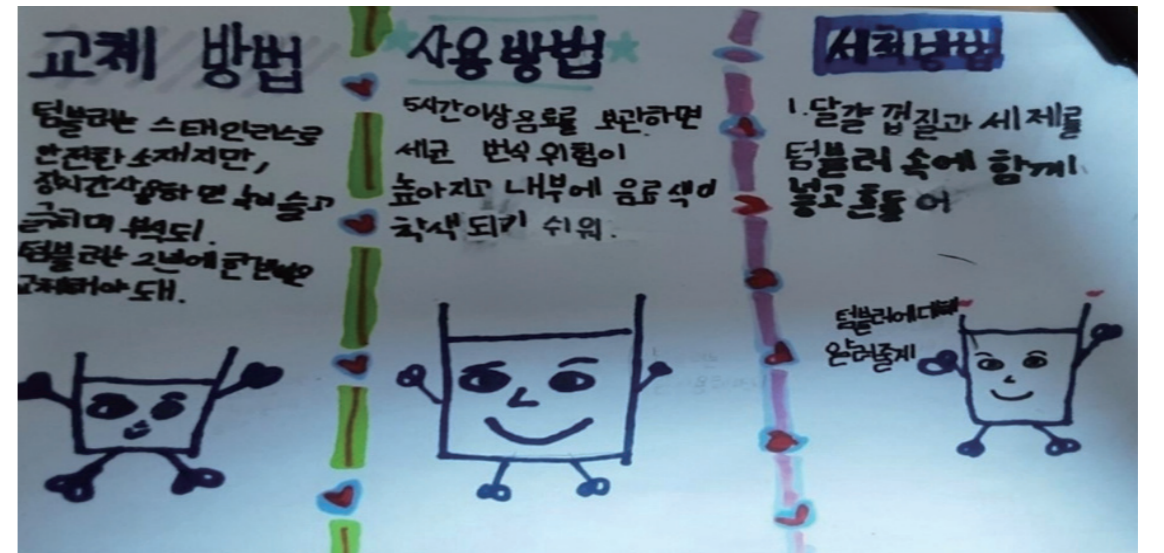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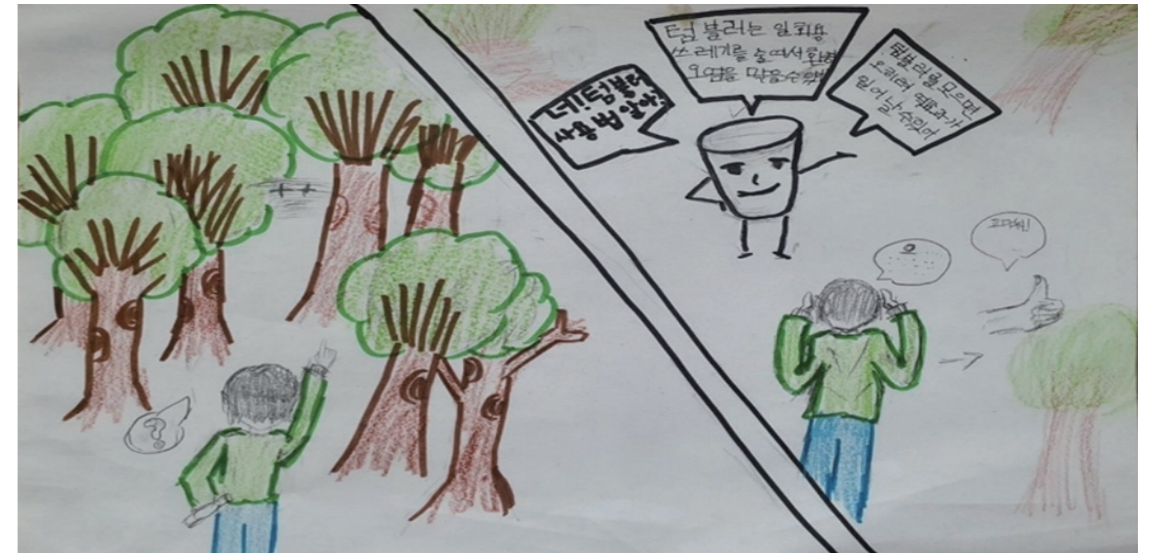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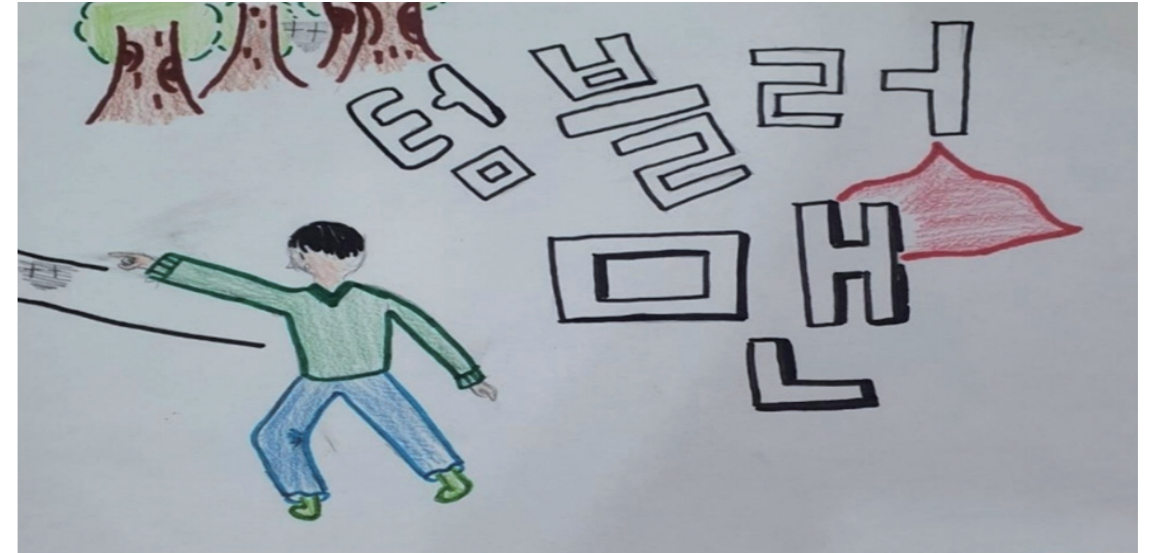
민재 : 텀블러 사용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재미있게 웹툰 형식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다.

승윤 : 글보다는 웹툰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았다. 텀블러를 기념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개의 텀블러를 오래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시온 : 사람들이 텀블러에 대해 많이 알고, 새로 많이 사지 않고 기존에 쓰던 것을 많이 사용했으면 해서 만들게 되었다.

웹툰 줄거리

주인공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텀블러 한 개를 발견한다. 텀블러를 가지고 산 속을 걷고 있는데 텀블러의 요정이 나타나서 텀블러 사용법을 알려 준다. 이후 길을 찾고 집에 돌아온 주인공은 텀블러 사용법을 친구들에게 알려준다. 텀블러 요정은 산 속 같은 자리에서 또 어떤 사람이 오기를 기다린다. 올바른 텀블러 사용법을 알려 주기 위하여...



제작과정

민재 : 어떻게 해야 재미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텀블러를 잘 알려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길을 잃었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얘기가 재밌을 것 같았고, 텀블러에서 요정이 나오면 재미있을 것 같았다. 줄거리가 조금 길지 않나 걱정되었다. 텀블러 사용이 환경에 꼭 유익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태인 : 민재가 이야기 줄거리를 생각하고, 모두 다 같이 웹툰을 그렸다. 1차로 각자 밑그림을 그렸고, 2차로 다 같이 색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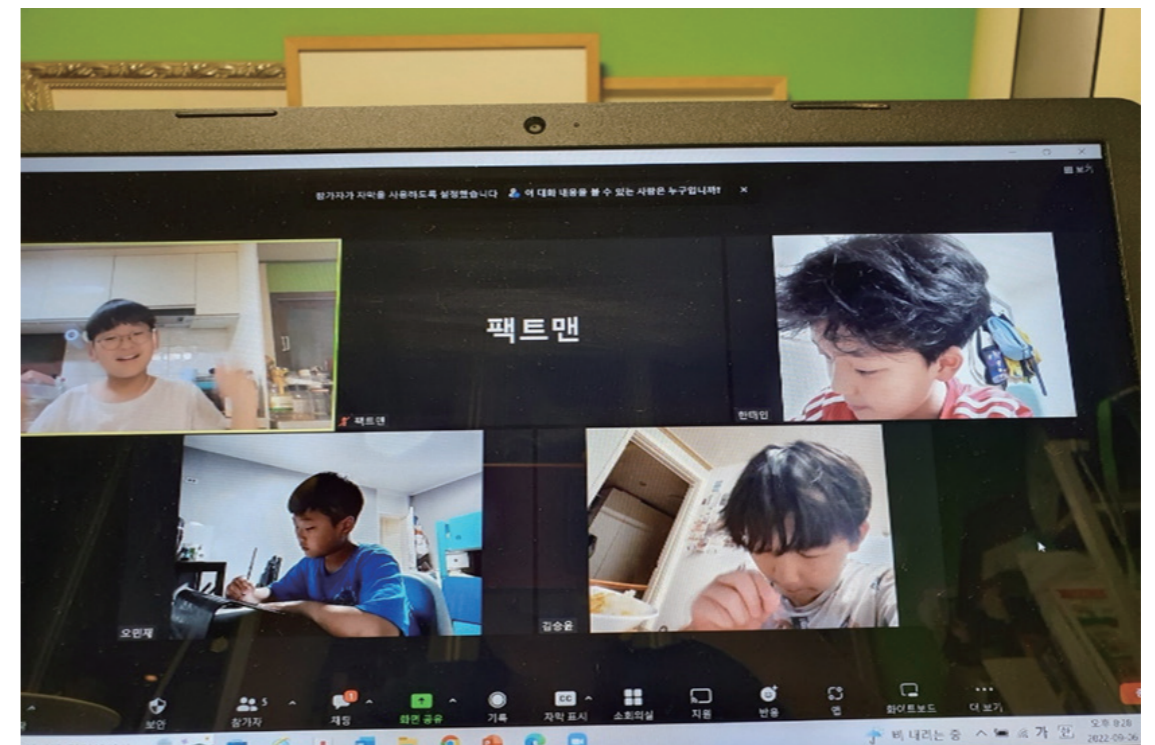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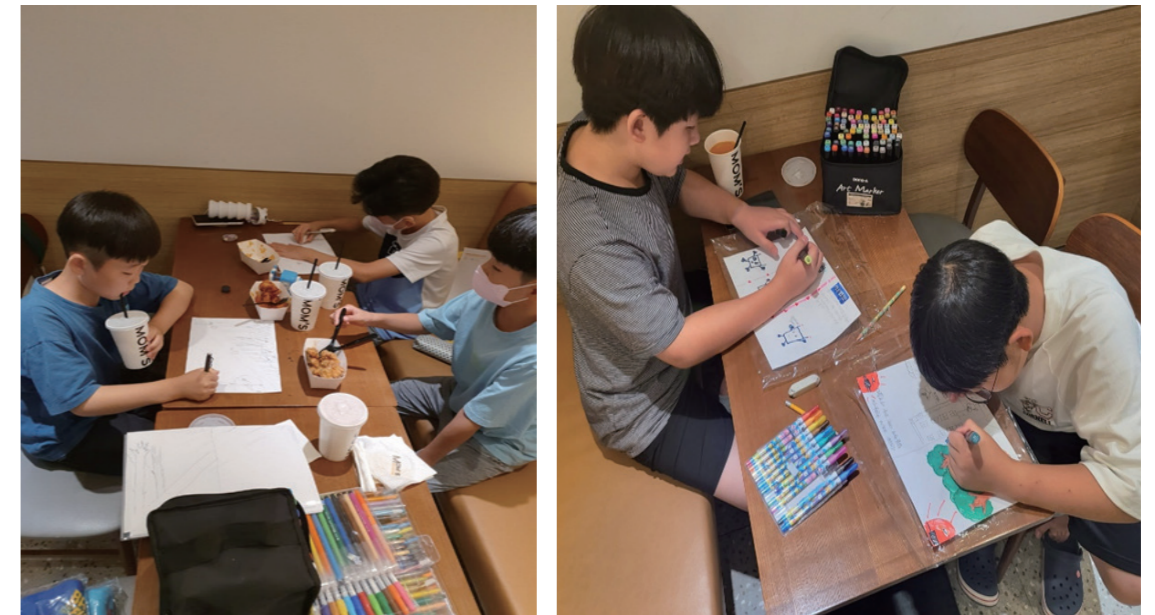
승윤 : 처음에 엄마가 체커톤을 제안했을 때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점점 하다보니 재미있었다. 나는 그림에 재능이 별로 없지만 친구들과 함께 웹툰을 그릴 때 너무 재밌어졌다. 나는 말이 느린 편이라 말이 빠른 민재가 먼저 말해서 짜증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민재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서 좋았다.

웹툰을 함께 만드는 동안, 그림을 잘 그린 민재, 시온, 태인이가 넘 멋지고, 민재가 과학 상식을 말해주고 시온이가 재밌게 해주고 태인도 같이 해줘서 친구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시온 : 일단 먼저 할 역할을 정하고 나서 밑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색칠을 해서 만들었다. 태인이 동생 태주가 웹툰 회의에 같이 있었는데, 표지 그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웹툰 줄거리를 들으면서 태주도 올바른 텀블러 사용법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아 좋았다. 줄거리와 인물, 상황, 배경 등이 좋았던 것 같다. 처음엔 밑그림 그릴 때는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다같이 보니까 진짜 웹툰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잘 한 것 같다.

함께 색연필과 싸인펜도 같이 쓰고 장난을 쳐도 빨리 끝내는 팀워크가 좋았다.

활동사진





참여소감



김승윤 >>>

텀블러 자체가 환경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을 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일인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가끔 멋진 물통이 있으면 새로 사달라고 엄마를 졸라 샀던 것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역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텀블러 말고도 새로운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을 참아가면서 우리 지구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기사를 보면서 리유저블, 그린워싱 같은 어려운 말도 알게 되어서 좋았다.

오민재 >>>

텀블러를 오래 사용해야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것을 이번에 배울 수 있어서 텀블러 사용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고민해서 지속적으로 써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한태인 >>>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텀블러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한 개의 기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며 모르는 말을 표시하고 사전을 찾아보고, 부모님께 물어서 설명을 들으니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알게 돼서 보람 있었다. 또 친구들이랑 회의를 하는 게 어색했지만 주제를 나눠서 각자의 생각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도 신기하고 재밌었다.

박시온 >>>

환경에 대해 많이 배웠고, 텀블러를 만들 때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쉽게 볼 수 있는 정보를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같은 제목의 기사를 찾아보거나 도서관에서 내가 알게 된 정보의 키워드를 찾아서 책을 찾아보는 방법을 배워서 좋았다.



전문가 피드백



최우리 기자

텀블러를 몇 번 사용해야 종이컵을 쓰는 것보다 더 친환경적일까?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려 노력하는 사람들도 이 질문에 답을 듣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팩트맨'의 주제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팀원들은 팩트체크 과정을 통해 텀블러를 만드는 데 역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여러 개의 텀블러를 구입하는 것 역시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가정에 5개 가량의 텀블러가 있는 현실을 확인하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한 개의 텀블러를 오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팩트체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점이 실제 검증하는 노력에 있습니다. 텀블러 하나를 만들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나 에너지의 양과 종이컵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간 온실가스나 에너지의 양을 비교해서 130번 텀블러를 사용하면 종이컵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어떤 근거로 이 결론에 다다랐는지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배운대로 언론 기사에 나온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런 결론에 닿을 수 있는지 자세히 그 과정을 기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